# 2초만에 승부 갈리는 '찰나의 예술'…수영대회의 '꽃'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알고 보면 더 재미 있는 세계수영대회

## ⑤ 다이빙

###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남부대 국제수영장서 경기 광주체육회 권하림 출전

다이빙은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스프링보드,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등 13개 세부종목이 펼쳐진다. 스프링보드는 1~3m, 플랫폼은 10m 높이에서 진행된다.

다이빙은 팔이 몸과 일직선을 유지한 채 머리 위로 쭉 뻗고 손은 가까이 모아야 한다. 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팔을 몸에 밀착시키고 팔꿈치는 굽히지 않아야 한다,

다이빙 순서는 예선경기에 앞서 제비뽑기로 결정된다. 결승경기는 준결승 경기까지의 점수를 합산, 역순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다이빙은 체조와 마찬가지로 심판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점수가 매겨진다. 도움닫기, 안정성, 뛰어오르는 높이, 공간 자세, 입수자세, 각도 등 기술적인 면을 비롯해 미적 요소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채점 결과를 발표한다.

다이빙 채점기준은 완전실패 0점, 불완전 0.5~2점, 부족 2.5~4.5점, 만족 5~6점, 양호 6.5~8점, 최우수 8.5~10점으로 0.5점 간격으로 세밀하게 표시한다.

다이빙은 1800년대에 'plunging'(물속에 뛰어들기) 유래됐다. 다이빙은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종목으로 선보였다. 여자 다이빙 종목은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추가됐다. 역대 다이빙종목 금메달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58개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46개, 미국 42개 순이다.

권하림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참가하는권하림(여·20·광주시체육회)은 한국 다이빙의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체육회 소속으로 활약 중인 권하림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같은해 제99회 전국체전 다이빙 여자일반부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3m(253.32점), 플랫폼다이빙(318.10점)에서 금메달을 땄다.

지난 4월 김천에서 열린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플랫폼 다이빙 1위(268.95점),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10m 2위(240.75점),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3m 2위(256.59점)를 차지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권하림은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돼 기쁘다"면서 "광주 소속 선수 중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컨디션도 잘 조절해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남자 선수로는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이 메달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우하람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에 성공, 11위를 기록한바 있다.

다이빙은 북한 선수단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 참가할 경우 메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북한은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미래, 김국향이 여자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10m에서 은메달 1개, 김미래, 현일명이 혼성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10m에서 동메달 1개로 종합 21위를 차지했었다.

한편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조직위 집계결과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종목에서 전체(6개 종목) 입장권 중 가장 많은 96%가 팔려나가 인기를 실감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다.

# 김정은·시진핑 평양서 5번째 만남 美 겨냥 북·중 관계 강화 선언 추진

### 中,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할 듯 홍콩 압박 카드·무역전쟁 맞대응

미·중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북·중 정상이 드디어 평양에서 얼굴을 맞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네 차례나 만났지만, 이번 회동이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이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북·중에 이어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은 핵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는 풀무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로 내상까지 입어 북·중 관계 격상과 북미 핵 협상 재개 중재라는 '북한 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일부터 21일까지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동안 네 차례 북·중 정상회동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으로 찾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북·중 간 정상국가다운 외교가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밀리고 홍콩의 대규모 시위로 대외적인 이미지마저 나빠지자 시 주석의 방북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와 같은 혈맹 수준은 아니더라도 명목상 이에 버금가는 관계 격상을 선언하며 전략적 밀월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대미 협상 카드가 되고, 북핵 협상에서는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느냐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으로선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의사를 끌어낸 뒤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함으로써 남북미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협상할 카드를 쥐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와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서 시 주석으로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북한 카드'는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 방북 카드 꺼내든 시진핑, 셈법 복잡해진 트럼프

### G20 정상회의·무역담판 촉각 재선 도전 동력 구상에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이 공개적으로 날아든 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과의 무역담판을 열흘여 앞둔 시점이다. 방북 시점을 저울질해온 시 주석이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을 앞두고 전격 방북 카드를 꺼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각각 북한 변수와 중국 변수 추가로 좀 더 복잡해진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과 북미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 주석 방북 발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의 G20 대면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 있다.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주 열리는 G20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로 이끌고 이를 중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재선가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기대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 주석이 방북 카드를 꺼내 들며 북한이라는 협상 지렛대를 추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순조롭게 현실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말로 시한을 설정하며 '새 계산법'을 미국에 압박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미국이 오판할 경우 새 길을 가겠다'는 올해 신년사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북과 G20,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중대 외교일정이 연달아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이 북미협상 교착 돌파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행보를 지켜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북 역시 재개 전망이 어둡던 북미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시진핑 방북 한국정부 의중 담겨…비핵화 대화에 도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동력을 살리는 데 북중 간의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중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에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북유럽 순방 중에 인지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다. 통보를 받았는지, 우리 정부가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달 말 G20(주요 20개국) 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